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미*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Langara College는 밴쿠버 49번지 Avenue 에 있으며 버스정류장이나 스카이트레인 과 같은 대중교통이 가까워 다른 곳으로 놀러가기에 편합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다 친절하고 자유로우며 스타벅스와 서브웨이, 팀홀튼 같은 카페, 음식점들이 있어 편리하게 음식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날에 가자마자 듣기평가 식으로의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가 결과여부는 알 수 없으며 정해지는 반으로 가서 3주 동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내용은 전반적으로 쉬웠고, 교재가 커서 다소 무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엄청 착하시고 정확한 문법과 문장을 만들지 못해도 잘 알아들으셨고 과제 또한 스스로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대부분 어디 다녀온 경우 감상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일기쓰기가 있었는데 하고 싶은 사람만 쓰고 내면 피드백을 해주셔서 돌려주셨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①Kayaking: 선글라스와 모자, 선크림 필수 물을 무서워해서 많이 걱정했지만 안전요원 분들이 따라와 저희를 케어 해주셔서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어깨와 손가락에 근육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p> <p>②Discover Vancouver: 운동화, 선글라스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편한 옷과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다음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인솔자분들과 대화를 하여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습니다.</p> <p>③Whistler Trip: 무조건 외투(겉옷) 챙겨야 합니다. 여름이어서 얇은 옷만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산을 올라가면 온도가 현저히 내려가 온도차가 큼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첫 주에는 조금 더워서 반팔만 입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둘째 주 부터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여 낮에도 긴팔을 입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온도가 더 내려가 꼭 겹옷을 챙겨 나가야만 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위험한 일은 전혀 없었지만 조금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무서웠습니다. 통금 전에 항상 들어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에서 가방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가지 말고 항상 자신이 소지하여 다녀와야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 3살의 아이가 있어서 좀 더 활기찼고 처음부터 많이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아침은 챙겨주시지 않고 스스로 시리얼이나 빵을 먹고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되었고 홈스테이 안에서의 특별한 규칙은 없었습니다. 샤워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뭐든지 허락해 주셨고 홈스테이 학생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저녁식사를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자신이 저녁을 안 먹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밴쿠버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있으며 한식당도 있는데 그곳은 너무 가격이 비쌌습니다. 모든 식당들이 택스와 팁을 줘야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금을 가져갈 경우엔 작은 액수의 돈으로 바꿔 가면 좋겠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집에서 걸어서 15~20분 거리이며 아침산책 겸 걸을만 했습니다. 같이 홈스테이를 하는 일본인 친구와 대화를 하며 학교를 가서 더욱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밴쿠버 중심지인 다운타운으로 가는 버스가 바로 있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대중교통은 약 새벽1시까지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00,000	커피(음료),저녁
선물(쇼핑)	350,000	화장품, 메이플쿠키+시럽
교통비	50,000	자전거대여, 페리(배)
합계	약 2,387,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여름이지만 의외로 날씨가 춥습니다. 외투 챙기는 거 필수이고, 비는 3주 동안 한 번도 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비상용으로 작은 우산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 물가는 비싼 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식당에서의 팁은 안내도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팁을 먹은 금액의 15%~25%까지 주고 나오기 때문에 돈이 배로 드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화장품을 사려고할 때 그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택스까지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싸게 사시려면 면세점 추천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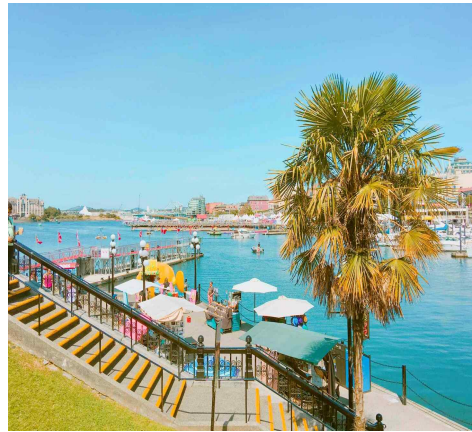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3주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 캐나다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 좀 떠나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은데 한국에 들어오려니 시원섭섭한 마음 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반 친구들과 정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SNS 친구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두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사항은 사람들 모두 다 착하고 항상 배려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어서 길을 많이 헤맸을 때도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해주시고 영어가 서툴러 어려워해도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스스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배우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실력도 키우고 다국적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Victoria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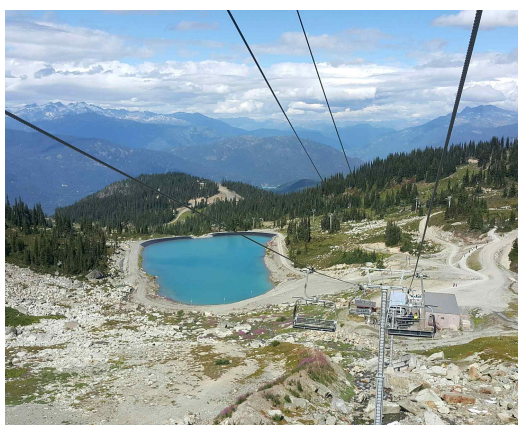
Victoria Island



steam clock



Kayaking



Whistler trip



Granville Island-Brewing